

02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김 규 정

전북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 II.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연구현황
- III.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 IV. 맺음말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김 규 정 (전북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영산강은 내장산을 기점으로 남서로 분기하여 입암산-방장산-구황산-장암산-불갑산-군유산으로 이어지는 영산기맥과 남으로 분기하여 추월산-무등산-봉화산-월출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을 자연경계 삼아 유역권을 이룬다. 수계는 담양군 용면 추월산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전남의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면서 장성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는 황룡강과 화순에서 발원하여 서북류하는 지석천이 차례로 합수하고 광주천, 만봉천, 고막천, 함평천, 삼포강, 영암천 등 작은 지류를 포함한다. 삼포강과 영암천은 내해인 남해만과 영암만으로 바로 흘렀었지만 영산강하구언 공사가 완료되면서 영산강 수로가 목포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산강 지류에 포함되었다(조진선 2006, 186쪽). 이처럼 영산강유역은 크고 작은 지류들이 발달되어 있고 낮은 구릉과 강변 충적지가 발달되어 선사·고대인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넓게 분포하지만 대체로 상류와 중류에 밀집된 양상이 확인된다. 영산강은 지리적인 특징에 따라 배가 왕래했던 영산포를 기준으로 상류권과 하류권으로 구분하거나(유향미 2006), 자연지형에 따라 상류, 중·하류, 서부, 서부도서, 서북부, 남부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본 발표문에서는 발원지와 큰 지류인 황룡강과 지석천이 합수되는 담양·장성·광주·화순을 상류로, 영산강 본류이면서 해수의 영향을 받았던 영산포를 포함한 나주·영암을 중·하류로, 그리고 고막천, 함평천 등이 있는 함평·무안을 영산강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지식묘의 밀집분포지이자 古代에는 웅관고분으로 대표되는 마한문화권의 핵심지역으로서 백제가 국가체제를 완성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마한문화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선사·고대문화는 지식묘와 웅관고분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본 발표문의 연구범위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영산강유역 지식묘(2015·2016·2017)』의 지역구분을 참조하여 영산강 상류지역(장성·담양·광주·화순), 영산강 중·하류지역(나주·영암), 영산강서부지역(함평·무안)으로 구분하였다.

영산강유역 청동기문화는 제지의 지식묘문화와 함께 수전농경 중심의 송국리문화가 바탕이 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주변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탕은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유적이라 할 수 있는 신창동유적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본 발표문은 지금까지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과 분묘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 문화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연구현황을 취락과 분묘로 나누어 개괄하고 현재까지 조사된 취락과 분묘를 통해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연구현황

1. 취락 연구현황

영산강유역에서 처음 보고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977년 광주 송암동에서 조사되었는데 호남지역에서 처음 조사된 송국리식주거지이다. 이후 1984~1986년에 걸쳐 영암 장천리에서 모두 12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대체로 송국리식주거지로 영산강유역이 송국리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천리유적 이후의 발굴조사는 잠시 소강기에 들었다가 1990년대 들어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과 도로개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는 광주광역시에서 취락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05년 광주 용두동에서 전기취락과 함께 중기취락이 조사된 것을 비롯해, 수완지구에서 전기 주거지와 송국리형취락이 대규모로 조사되었으며 수완지구 내 수문 취락은 성덕·장자·신완 유적과 함께 송국리문화 단계의 중심취락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종철 2014, 171쪽). 또한 영산강유역 전역에서 전기~중기에 이르는 취락들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어 비로소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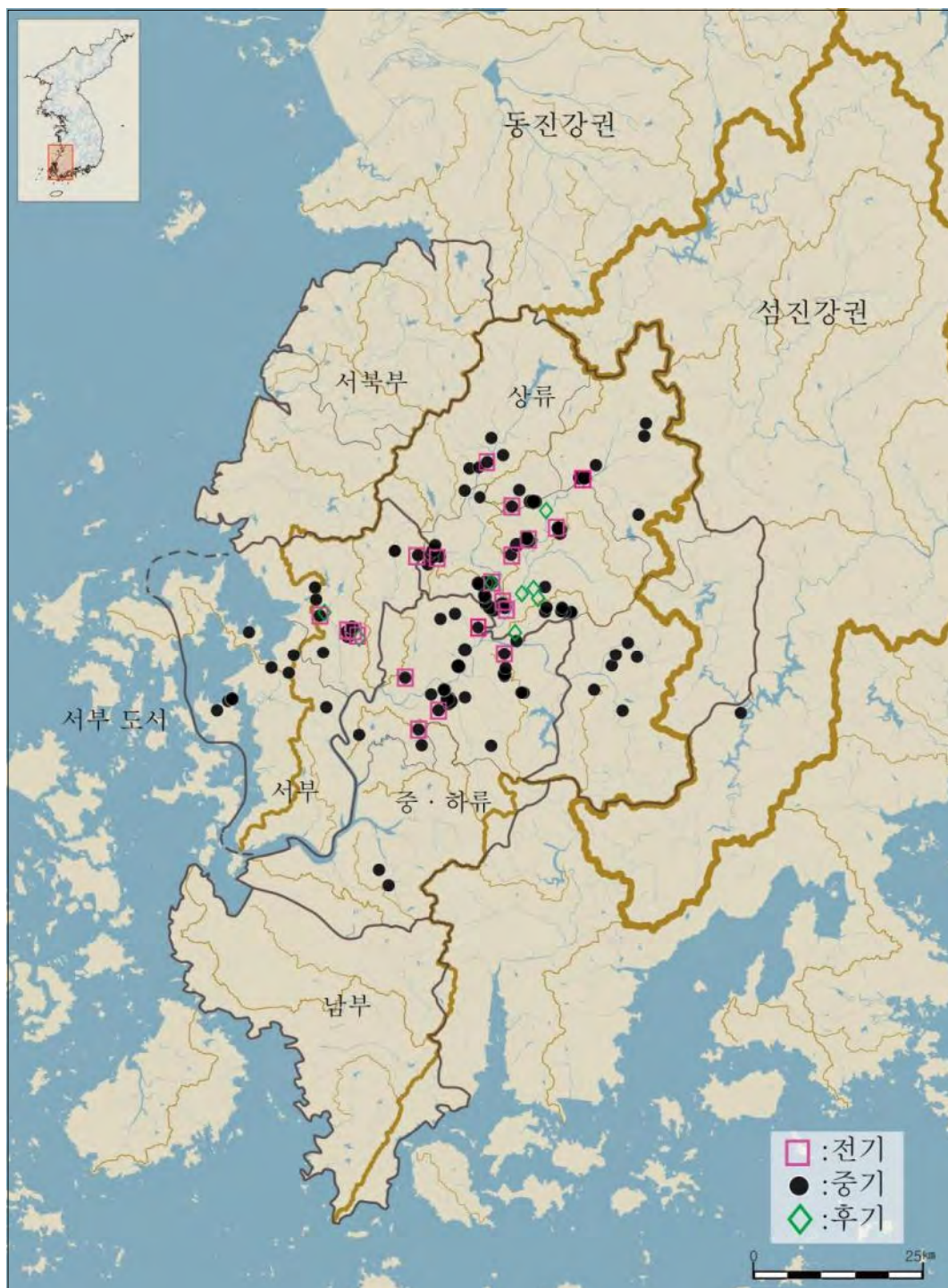


그림 1.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분포도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연구도 발굴조사 자료가 증가되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호남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영산강유역의 청동기문화는 간헐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종철 1999·2015; 김규정 2000·2013; 유향미 2006; 신상효 2007; 김문국 2010; 홍밖음 2010a·2010b; 정다운 2015; 천선행 2016).

중기에는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구릉이나 충적지를 중심으로 수기에서 수십 기의 주거지가 군집을 이루며 취락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그 가운데 광주 평동과 나주 운곡동에서는 대규모 취락이 확인된다. 2004~2007년 조사된 나주 운곡동유적은 모두 74기의 송국리식주거지가 조사된 대형취락으로 영산강유역의 가장 대표적인 취락으로 볼 수 있고, 2008~2009년 조사된 광주 평동유적은 송국리식주거지 37기가 조사된 대형취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형취락의 등장은 생계경제에 있어 수도작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취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유향미(2006)에 의해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주혈이 있는 A형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원형과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가 공존하다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로 대체되고 최종적으로 철기시대 장방형주거지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홍밖음(2010a·2010b)은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전기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접촉·융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와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았다.

2. 분묘 연구현황

청동기시대 분묘는 지석묘로 대표되는데 영산강유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지석묘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나주 노동리에 분포하는 지석묘 30기 가운데 2기이다(小泉顯夫 1986). 이후 1961년 김원룡에 의해 담양 문학리 지석묘가 소개되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1975년 영산강 4개 댐 가운데 대초댐·담양댐·장성댐에서 지석묘 63기, 1977년 나주 보산동 지석묘 1기, 광주 충효동 지석묘 6기가 발굴조사되었다(전남대학교박물관 1979).

1980년대에는 시·군 단위의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에 걸쳐 전 시·군에 대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 1996년 『전남의 고대묘제』가 간행(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1996)되었으며 내용 가운데 지석묘 부문만 발췌하여 『전남의 지석묘』라는 단행본(이영문·조근우 1996b)을 발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지석묘 2,208개소 19,058기가 분포하며 영산강유역의 지석묘는 574개소 4,218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산강 중·하류와 그 지류에 밀집된 반면 상류로 갈수록 그 분포 수나 밀집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조근우 1996a, 516-517쪽).

최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산강유역 지석묘의 종합적인 분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석묘는 기존 1,585개군 9,629기가 분포하였으나 경지정리와 각종 건설공사로 멸실되어 현재 7,455기(시·발굴조사 1,105기 제외)가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2016)²⁾.

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산강유역 지석묘 분포조사는 고창·영광지역까지 포함한 것이다. 영산강유역과 고창·영광지역은 문화적인 동질성이 높지만 본 발표문은 영산강유역권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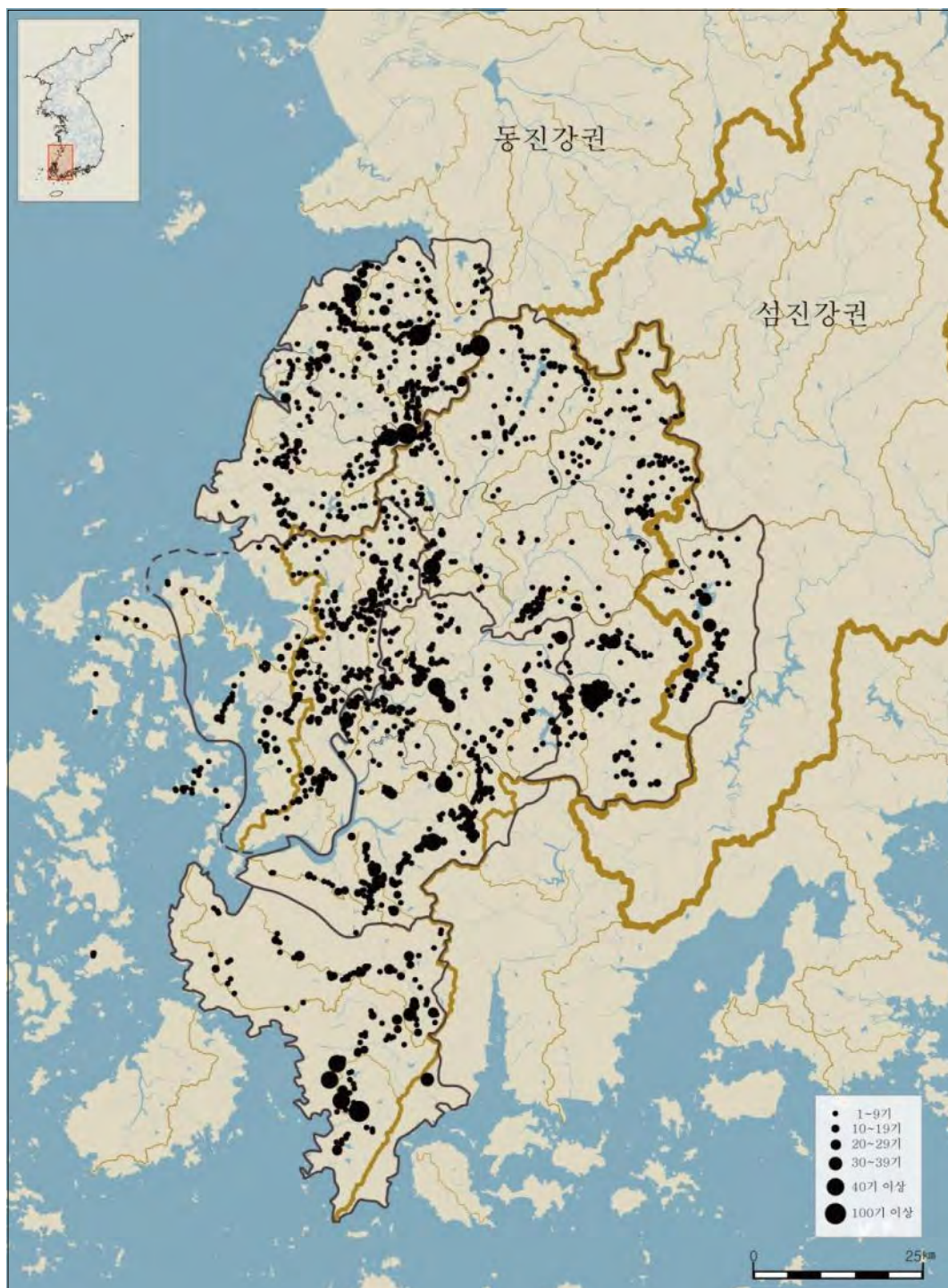


그림 2.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지석묘 분포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산강 상류지역(장성·담양·광주·화순)은 지석묘 245개소 1,751기가 보고되었는데 2015년 조사에서는 459개소 2,644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422기가 멸실되어 2,222기가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석묘는 55개소 224기이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영산강 중·하류지역(나주·영암)은 지석묘 355개소 2,516기가 보고되었는데 현재 1,914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시·발굴조사된 지석묘는 45개소 220기이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영산강서부지역(함평·무안·목포)의 지석묘는 272개소가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석묘는 18개소 111기이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전남지방 지석묘에 대한 연구는 1978년 최몽룡의 「전남지방 소재 지석묘의 형식과 분류」라는 논문을 통해 전남지방 지석묘의 형식이 분류되고 출토유물과 분포로 마한과의 관련을 시사하는 등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최몽룡, 이영문, 지건길에 의해 10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면서 전남지방 지석묘의 성격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정리는 이영문의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이영문·조근우 1996, 33쪽). 영산강유역 지석묘에 대한 연구 또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이영문 1988; 선재명 2001; 김승근 2002; 平郡達哉 2004;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홍باط음 2015; 강진표 2016; 이동희 2017; 강동석 2018).

영산강유역 지석묘의 축조 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로 보고 있지만(이영문 2004), 다른 지역에 비해 출토유물이 빈약해서 시기 설정의 한계가 있다. 최근 영산강상류 지석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산강유역 지석묘가 송국리문화와 관련이 깊고 시기 또한 중기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았다(홍باط음 2015). 하지만 전기 분묘의 대부분이 전기 후반에 해당되고 있어 본격적인 분묘 축조의 시작은 전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배진성 2018, 39-43쪽).

영산강유역 지석묘는 중·하류와 그 지류에 밀집되어 있으며 상류로 갈수록 그 분포수나 밀집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밀집분포상으로 보아 영산강을 따라 들어온 지석묘 집단이 나주 다시면 일대에 자리를 잡고 지석묘를 성행시켰으며, 일부 집단들이 점차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영산강을 따라 상류쪽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이영문 2004, 74쪽).

점토대토기문화기 분묘와 관련한 연구는 이동희(2002)의 연구가 주목되는데 그는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기 묘제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I 단계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유입되는 시기로 원형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조문경, 흑색마연장경호 등 새로운 유물이 나타나고 분묘는 적석목관묘의 일부 속성이 가미된 적석석곽묘, 석개토광묘, 지석묘 등 다양하며 기원전 4세기~3세기 전반으로 보았다. II 단계는 기원전 3세기~2세기 전반경으로 점토대토기문화의 토착화가 진행되는 시기, III 단계는 토광목관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로 초기 형태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기 시작하며 기원전 2세기 전반~2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IV 단계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대부분 사라지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며, 분묘는 대부분 옹관묘, 토광목관묘가 조성되며 기원전 2세기 중·후엽에서 기원전후한 시기로 편년하였다.

Ⅲ.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한반도 청동기문화는 각 유형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는데 미사리유형을 早期,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을 前期, 송국리유형을 中期, 수석리유형을 後期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영산강유역에서도 유효하지만 아직 조기의 문화상은 선명하지 않다³⁾.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전기문화의 특징

1) 주거지

영산강유역 조·전기는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조기는 미사리유형의 존재 유무를 통해 설정이 가능하다. 미사리유형은 평면 방형주거지에 내부시설은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되며, 유물은 돌대문토기를 특징으로 한다. 미사리유형은 섬진강중류 순창 원촌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영산강상류인 담양 태목리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태목리 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절상)돌대문토기와 직립구연호가 출토되었다. AMS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13~12세기로 편년되고 있어 전기 단계와 구분되지만(이종철 2014, 179쪽) 주거지의 평면이 장방형으로 변화되고 유물 또한 직립구연호와 공반되고 있어 초기와는 차이를 보이고(김규정 2016, 186쪽)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지만 초기까지 소급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전기는 영산강유역에 본격적으로 주거지가 축조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이 영산강유역에 처음 유입되고 확산될 당시에는 각 유형 간의 접촉이 없었다가 차츰 각 유형이 접촉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의 흔적이 주거지나 유물에서 나타나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각 유형 간의 접촉 양상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전기 1단계는 호남 북서부지역으로부터 가락동유형이, 호남 동부내륙으로부터 미사리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 유입되는 시기로 주거지는 1~2기로 구성된 단위 주거군으로 볼 수 있으며, 유적 또한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유적은 영산강 상류의 담양 태목리 1호 주거지, 장성 장산리 2호·3호 주거지, 광주 용두동 1호 주거지, 덕림동 을림 A-1호 주거지, 하산동 2호 주거지, 중·하류의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주거지,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신흥동 II-8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3) 조기는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미사리유형으로 대표되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담양 태목리에서 확인된 1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의 주거지가 조사된 사례가 없어 영산강유역 초기 설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증가된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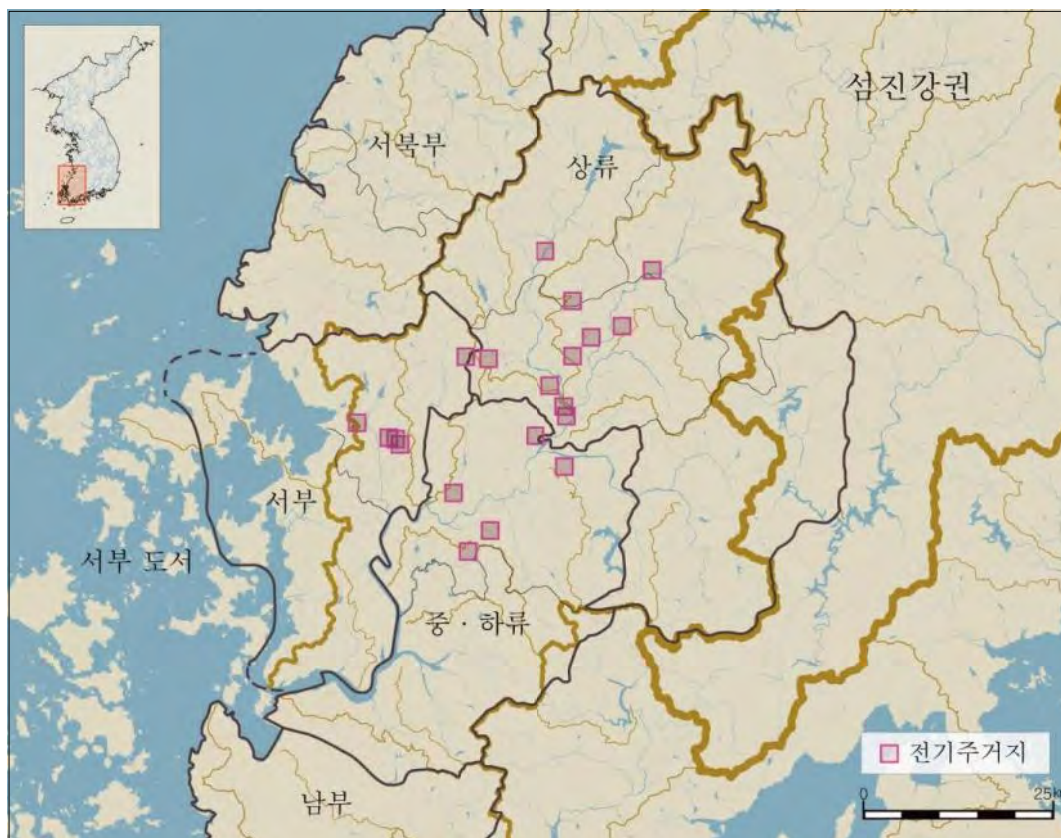


그림 3.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분포도

장성 장산리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를 특징으로 하며, 중앙에 2열의 정연한 주혈이 특징이다. 유물은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광주 덕림동 올림 A-1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무시설식노지가 특징이며 주거유형은 가락동유형의 둔산식주거지의 변형으로 볼 수 있지만,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구순각목, 공열+구순각목문토기 등이 출토되어 가락동유형에 역삼동·혼암리유형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산동 1호 주거지는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토기와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었다. 하산동 2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에 중앙 2열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으며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돌류문토기, 삼각만입촉 등이 출토되었다.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복수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 호, 주형석도, 일단경식석축, 일단경식석축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유형은 역삼동식이지만 유물은 가락동유형이다.

역삼동유형은 영산강 중·하류의 나주 동곡리 황산 1호 주거지로 대표되는데 평면 장방형에 복수의 토광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호, 심발, 일단경식석축, 석부, 석착 등

공열을 특징으로 하는 역삼동식이다.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신흥동 II-8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둔산식주거지를 특징으로 한다. 유물은 어형석도, 삼각만입촉, 편평편인석부, 석제방추차, 석부, 석작, 지석이 출토되었다.

전기 I 단계는 영산강유역에 주거지가 간헐적으로 확인되지만 개별 주거로 구성되며 취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절대연대는 상류의 담양 태목리 1호 주거지 2,980±60BP, 광주 용두동 1호 주거지 2,980±50BP, 광주 하산동 1호 주거지 2,994±28BP, 2호 주거지 3,057±56BP · 3,140±29BP, 5호 주거지 2,995±32BP, 중·하류의 동곡리 횡산 1호 주거지 3,060±60BP · 2,860±50BP · 2,930±50BP · 2,880±50BP, 서부의 함평 신흥동 II-8호 주거지 2,910±20BP · 2,925±20BP · 2,945±20BP · 2,880±50BP, 외치리 백야 A-2호 주거지 2,930±30BP 등이다. 영산강유역 전기 전엽은 3,100~2,900BP로 볼 수 있다. AMS연대와 출토유물로 볼 때 가락동유형을 특징으로 하면서 복합문양이 시문되지만, 나주 동곡리 횡산 주거지처럼 반관통돌류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역삼동유형 가운데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전기 II 단계는 영산강유역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주거지들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전 시기에 비해 유적이 급증한다. 조사된 유적은 상류의 광주 산정동 1호, 수문 1호, 용두동 장방형주거지, 노대동, 하산동, 덕림동 을림, 동림동 저습지, 화순 내평리 등이다. 영산강중·하류는 나주 이암 1호, 장동리, 덕산리 동산촌, 대안리 방두 등이며, 영산강서부지역은 함평 신흥동 I-5호 · II-5호, 고양촌, 송산, 외치리 백야 등이다.

산정동 1호는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심발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은 폭이 넓어지고 단사선도 일정한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수문 1호는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고, 유물은 폭이 넓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토기, 심발,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은 흔적만 남은 퇴화형식이다. 덕림동 을림 A-2호는 무시설식노지에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중·하류의 이암 1호는 평면 장방형에 토광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양인석부가 공반된다. 덕산리 동산촌은 평면 장방형에 토광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토기와 대패날이 출토되었다. 영산강서부지역 신흥동 I-5호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노지+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복합문양계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구순각목),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호, 삼각만입촉, 어형석도, 편평편인석부 등이 공반된다. I-5호 주거지의 주거구조는 가락동유형이지만, 유물은 복합문양계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구순각목),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공반된다. 이는 가락동유형 집단에 의해 역삼동유형의 일부 요소를 채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흥동 II-5호는 평면 장방형에 복수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심발이 공반된다. 외치리 백야 A-4호는 구순각목, 단사선+구순각목과 환상석부,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전기 II 단계는 주거지가 역삼동유형으로 바뀌고 유물도 역삼동·흔암리유형을 특징으로 한다. 무엇보다 I 단계의 뚜렷한 이중구연은 이중구연의 폭이 넓어지고 동체와 두께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이중구연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는 퇴화형식이 대부분이다.

전기 II 단계의 절대연대는 영산강 상류의 광주 수문 1호 주거지 2,920±60BP, 중·하류의 나주 덕

산리 동산촌 1호 주거지 $2,970 \pm 30BP$ · $2,880 \pm 30BP$, 서부의 신흥동 II-5호 주거지 $2,866 \pm 20BP$, 외치리 백야 A-4호 주거지 $2,850 \pm 40BP$ · $2,810 \pm 40BP$, A-10호 주거지 $2,880 \pm 30BP$ 로 편년된다. 동림동 저습지 목기 $3,880 \pm 30BP$, 고무래 $3,210 \pm 40BP$, 목재 $2,920 \pm 40BP$, 이암 1호 주거지 $2,960 \pm 50BP$ · $3,010 \pm 50BP$ · $3,070 \pm 50BP$ 등은 AMS연대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지만 가락동유형의 특징적인 이중구연+단사선의 퇴화가 뚜렷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II단계는 $2,900 \sim 2,800BP$ 로 편년할 수 있다.

전기 III단계는 전기 장방형주거지가 세장방형이나 방형으로 바뀌고 영산강유역 전역으로 확산된다. 대체로 전기 II단계의 장방형주거지와 공반되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적은 영산강 상류의 광주 수문 2호 · 2-1호 주거지, 용두동 (장)방형주거지, 중 · 하류의 나주 장동리 (장)방형주거지,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고양촌 2호 · 5호 주거지, 신흥동 I-4호 · I-6호 · I-8호 · I-11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수문 2호는 세장방형에 토광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한 돌류문토기, 직립구연호편, 삼각만입축이 출토되었다. 용두동 방형주거지는 대부분 중앙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4호 주거지에서 삼각만입축, 7호 주거지에서 삼각만입축과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고양촌 2호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적색마연토기 호편이 출토되었다. 고양촌 5호 주거지는 원형이며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삼각만입축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이중구연 폭이 넓어지고 단사선도 정형성이 없는 퇴화형식이다. 신흥동 I-8호 주거지는 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단사선문+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다. 신흥동 I-4호 · I-6호 주거지는 방형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유물은 무문양계 심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I-1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유물은 심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기 III단계는 주거지 규모가 소형화 · 규격화되고 이중구연도 거의 퇴화되어 선상으로 흔적만 남아 있으며 무문양계의 출토비율이 증가한다(김규정 2016).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방형과 원형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전기의 특징인 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전기 III단계의 AMS연대는 영산강 상류의 광주 용두동 4호 주거지 $2,940 \pm 60BP$ · $2,970 \pm 60BP$ · $2,880 \pm 50BP$, 광주 수문 2호 주거지 $2,690 \pm 60BP$, 수문 28호 주거지 $2,820 \pm 60BP$, 하산동 6호 주거지 $2,715 \pm 31BP$, 영산강서부지역의 고양촌 2호 주거지 $2,700 \pm 40BP$ · $2,790 \pm 60BP$ 등으로 전기 III단계는 대체로 $2,800 \sim 2,700BP$ 로 편년할 수 있다. 영산강서부지역의 고양촌 5호 주거지는 평면 원형에 무시설식노지와 퇴화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삼각만입축이 출토되어 영산강유역 원형주거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호남 북서부지역 전주 여의동 용정 1호 주거지도 원형주거지 중앙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어 있고 AMS연대는 $2,853 \pm 37BP$ 로 측정되어 고양촌 5호 주거지도 여의동 용정 1호 주거지와 큰 시기차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III단계는 기존 장방형주거지가 서서히 소멸하면서 주거지 규모가 소형화 · 규격화되면서 방형이나 원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묘

영산강유역 조 · 전기의 분묘는 나주 랑동 지식묘군 1호 묘실과 장동리에서 조사된 토광묘 1기가 유일하다. 분묘는 청동기시대에 정형화되고 집단적으로 조영되기 시작하며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 기초를 둔 사회적인 관습 중 하나로 보수적이고 끈질긴 전통을 지니고 있어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

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 2011, 36쪽). 청동기시대 분묘는 전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배진성 2018, 39-43쪽).

나주 랑동 1호 묘실은 상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묘실만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부가 긴 유구식유 경석검이 출토되었는데 AMS연대는 $2,880 \pm 40\text{BP}$, $2,800 \pm 40\text{BP}$ 로 측정되었다. 석검 가운데 장경식과 유공식 석검은 전기 주거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전기 유물로 볼 수 있어(이영문 2011, 41-42쪽), 나주 랑동 1호 묘실은 출토된 유물과 AMS연대로 볼 때 영산강유역 전기 II단계로 편년 가능하다. 나주 장동리 토광묘는 전기의 특징적인 삼각만입촉과 적색마연토기호, 식옥이 출토되었는데 삼각만입촉이 대체로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어 장동리 토광묘는 전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산강 상류 지석천수계에 속하는 화순 대신리 나지구 채석장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지석묘 상석을 채석하는 채석장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이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제의나 신앙처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 외 2002, 95쪽). 중·하류인 나주 보산동 1호 지석묘에서 부장유물은 아니지만 이중구연토기편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최몽룡 1977)되었는데 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하지 않다⁴⁾.

영산강유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수렵, 채집, 어로, 농경에 적합하고 바다를 통한 외부 선진문화와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청동기시대 지석묘 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처럼 영산강유역 지석묘문화는 독자적으로 형성 발전될 수 없고 주변지역과 끊임없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문 2004, 70쪽).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된 분묘가 많지 않다. 나주 랑동 지석묘와 장동리 토광묘로 볼 때 분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전기 II단계부터이다.

2. 중기문화(송국리문화)의 특징

1) 주거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문화로 대표되는데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구덩이와 중심주혈이 있는 송국리식주거지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묘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되며, 영산강유역은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기의 지석묘문화가 지속되어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석관이 채용되거나 지석묘와 함께 석관묘가 축조된다.

영산강유역의 송국리식주거지는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조사되었다. 영산강 상류에서는 담양 성산리·태목리·오산리·중옥리, 장성 대덕리·서양리·야은리·환교·월산리·월정리·삼태리·장산리, 화순 북교리·백암리·화림리 광대촌·품평리 봉하촌·내평리, 광주 송암동·산정·수문·성덕·장자·신완·용두동·관동·금곡·기용·하남동·노대동·행암동·평동·외촌·임암동

4) 구연부를 성형한 후 점토띠를 아래로 내려 접어붙인 이중구연으로 구연부에 문양은 확인되지 않지만 점토대토기와는 구분되는 이중구연토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에서 아직까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예가 없고, 도면을 살펴보면 이중구연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구연부가 외반되었고 경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원형점토대토기의 변형인 단면 방형 점토대토기일 가능성이 있다.

입암·덕남동 덕남·덕림동 북만·덕림동 올림·덕림동 갯이들·북룡동·하산동 등에서 조사되었다. 영산강 중·하류는 나주 이암·송월동·신촌리·장동리·도민동·만봉리·매성리 재성·기동·신평·영천·장등·촌곡·운곡동·월양리·은사·장산리 장사·양지촌·구기촌, 영암 장천리·금계리에서 조사되었다. 영산강서부지역에서는 함평 죽암리 소명·진양리 중량·용산리 대성·고양촌·월야리 순촌·신흥동·송산·마산리 표산·자풍리 신평·상곡리·성천리 와촌·용산리 수산·외치리 백야·외치리 분산, 무안 다산리 인평·연리·용정리 신촌·평산리 평림·통정·하묘리 두곡에서 조사되었다.

중기는 주거지, 지상건물지, 수혈, 분묘, 의례시설 등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며 이전 시기에 비해 취락의 구성에 있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 비해 취락의 규모가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나주 운곡동 74기, 광주 평동 37기, 광주 수문 31기 등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대형취락이 등장하는 양상이다. 또한 광주 산정은 23기로 중형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10기~20기 내외의 중소형 취락은 광주 외촌(10기), 성덕(11기), 화순 품평리(15기), 나주 영천(16기) 등 주로 영산강 상류와 중·하류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10기 미만의 소형취락은 영산강유역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영산강유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 취락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지 분포도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는 형식에서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중심주혈이 있는 A형식이 83%를 차지하고 있어(김규정 2000; 이종철 2000·2002)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A형식은 송국리식주거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호서·호남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다른 형식들과 공반된 사례도 많다. 하지만 영산강유역에서는 주로 A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단순한 주거유형으로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을 휴암리식, 원형을 송국리식으로 구분하는데 영산강유역의 경우 노양지(2021, 42-43쪽)의 분류에 따르면 81개 유적 711기(영광 14기 포함) 가운데 541기의 분석 결과 휴암리식 255기, 송국리식 284기로 송국리식이 약간 많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타난다. 나주·영광·장성·화순은 휴암리식이, 광주·담양은 송국리식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 일대는 송국리식주거지가, 나주 일대는 휴암리식주거지의 점유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4개의 주혈이 배치된 주거지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규모가 큰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평야가 펼쳐진 낮은 구릉과 강변 충적지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규모 취락인 운곡동은 구릉상에 입지하며, 평동은 강변충적지에 입지한다. 특히 대형취락은 농경에 유리한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동취락은 영산강 지류의 넓은 충적지에 분포하는 농경 기반의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다. 운곡동은 구릉상에 입지하지만, 50기 이상의 주거지가 여러 개의 소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 평탄면을 공지로 두고 주변에 환상이나 열상을 이루며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취락은 주로 강변충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주변에 중·소규모의 취락이 형성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수도작이 강조되면서 농경에 유리한 강변충적지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는 취락에서는 저장을 위한 별도의 시설들이 확인되는데 저장시설은 구덩이와 굴립주건물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 원형과 방형이 공존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원형이 줄어들고 방형이 증가하면서 철기시대 장방형주거지로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유향미 2006, 17-21쪽) 이는 광주 수문에서 방형이 원형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것을 근거로 보았다. 하지만, 방형과 원형이 중복된 사례는 광주 수문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영산강유역 전체의 양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김규정 2013, 96쪽). 또한 지금까지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송국리식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따른 시간성은 대체로 방형이 빠르고 원형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원형이 빠르고 방형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률적인 시간성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지역에 따라 평면형태의 시기차이는 인정되지만 시간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선호하는 평면형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호서지역으로부터 1차로 휴암리 집단이 유입되고 2차로 송국리문화가 유입·확산되면서 호남 일부지역은 송국리문화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송국리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노양지 2021, 82쪽)으로 보기도 한다.

영산강유역 중기취락의 편년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절대연대를 통해 볼 때 중기 전반은 2,700~2,600BP, 후반은 2,500~2,400BP로 본다(김규정 2016). 최근 증가하고 있는 AMS연대를 살펴보면 휴암리식인 장성 삼태리 서대 2호 주거지 2,917±48BP, 함평 와촌 2호 석곽 2,950±60BP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시기는 전기 전엽에 해당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수문 5호(휴암리식) 주거지는 $2,610 \pm 50\text{BP}$ 로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광주 북룡동 1-5호 주거지 $2,729 \pm 24\text{BP}$, 1-10호 주거지 $2,895 \pm 30\text{BP}$, 2-1호 주거지 $2,738 \pm 29\text{BP}$, 2-2호 주거지 $2,817 \pm 31\text{BP}$ 등은 상당히 빠른 시기로 편년된다. 무안 평림 2호(휴암리식) 주거지는 $2,620 \pm 50\text{BP}$ 로 유물은 방추차편, 석기편이 출토되었다. 휴암리식의 경우 대체로 $2,700 \sim 2,400\text{BP}$ 로 볼 수 있고, 대부분 $2,700 \sim 2,600\text{BP}$ 에 집중된다. $2,800\text{BP}$ 대는 확인되지 않으며 무안 평림 3호 주거지 $2,460 \pm 50\text{BP}$, 나주 구기촌 덕곡 6호 주거지는 $2,450 \pm 40\text{BP}$ 로 편년된다.

송국리식은 광주 용두동 13호 주거지가 $2,890 \pm 60\text{BP} \cdot 2,830 \pm 60\text{BP}$ 로 측정되어 영산강유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었지만, $2,800 \sim 2,700\text{BP}$ 로 측정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2,600 \sim 2,300\text{BP}$ 에 집중되고 있어 $2,600\text{BP}$ 를 전후한 시점에 휴암리식주거지가 확연히 줄어들고 송국리식주거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송국리식주거지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노양지 2021, 63쪽). 그리고 광주 수문 8호 주거지 $2,310 \pm 60\text{BP}$, 노대동 주거지 $2,370 \pm 50\text{BP}$, 나주 운곡동 II-4호 주거지 $2,380 \pm 40\text{BP}$, 운곡동 IV-11호 주거지 $2,300 \pm 60\text{BP}$ 등 대체로 $2,300\text{BP}$ 로 측정된 자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 영산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하한은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묘

영산강유역 중기 분묘는 지석묘가 가장 많고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소수 확인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옹관묘는 조사된 예가 없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축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된 사례가 많지 않아 편년 설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남해안지역과 보성강수계 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석검과 석촉인데 전기의 특징적인 이단병식석검이나 무경식석촉이 출토된 예가 없고 특히 영산강 상류의 경우 대부분 유경식석촉이 출토되고 있어 대체로 청동기시대 중기에 지석묘가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홍밖음 2015, 57-58쪽).

중기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주거지와 함께 분묘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 지석묘와 함께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축조되기 시작하고 지석묘 매장주체부(하부구조)도 석관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로 상석은 모두 이동되었지만 하부구조는 비교적 잘 남아 있어 구조 파악이 용이하다. 백양 지석묘군에서는 지석묘의 하부구조인 석곽형과 석관형이 모두 확인되며 석관과 석곽이 결합된 형태들도 확인된다. 특히 매장주체부를 판석을 이용해 가로방향으로 세워쌓기로 석관을 만들고 석관과 묘광 사이에 작은 할석을 이용해 뒷채움하고 다중개석을 덮은 구조이다. 송국리문화 중심분포권인 금강유역 석관묘는 묘광에 붙여서 석관을 축조하고 있는데 반해 백양에서 확인된 석관묘는 묘광과 석관 사이에 할석으로 뒷채움한 것이 특징이다. 함평 고양촌과 무안 성동리 안골, 맥포리, 평산리 평림에서도 지석묘 하부구조로 석관형이 확인되었으며 무안 하묘리 두곡지석묘군은 9기의 지석묘 가운데 8기에서 하부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석관형과 함께 석개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석묘는 중기에 사회변화와 함께 무덤의 구조나 형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이영문 2011, 67쪽) 전통적인 지석묘 축조지역에 새로운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지석묘 매장주체부로

사용하기 용이한 석관이 적극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식묘와는 별개로 송국리형묘제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석관묘는 영산강 상류의 화순 삼천리 황새봉에서 2기, 영산강 중·하류의 안산리 영천에서 석관묘 21기가 조사되었으며, 영산강서부지역의 함평 용산리, 월야 순촌, 고양촌, 신흥동에서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용산리에서는 석관묘 7기와 석개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으며, 월야 순촌에서는 석관묘 1기와 석개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고양촌에서는 석관묘 21기가 조사되었으며, 신흥동 I에서는 석관묘 11기, 월야리 송산에서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석관묘는 대부분 지식묘와 공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식묘의 하부구조인지 아니면 순수한 석관묘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 묘제 내에서 공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배치상태는 대체로 지식묘를 중심으로 주변에 석관과 석곽이 위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는 매장풍습의 차이 내지는 신분의 차이로 보고 있다(김승근 2007, 359쪽). 묘역 내에 석관묘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롭게 석관이 지식묘 매장주체부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송국리형묘제인 옹관묘는 아직까지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지의 지식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고 지식묘의 매장주체부로서 옹관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 광주 외촌에서는 주구를 갖춘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토광묘는 구릉 경사면에 축조되었으며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장축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면에는 ‘ㄷ’자 형태의 주구를 갖추고 있다. 매장주체부인 토광묘에서는 단경식석검이 출토되었다.

영산강유역에 중기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 재지의 지식묘는 지속되지만 하부구조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고 송국리형 묘제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가 축조되고 비록 1기에 불과하지만 주구묘가 축조되는 등 분묘에 있어 다양성이 확인된다.

3. 후기문화(점토대토기문화)의 특징

청동기시대 후기는 점토대토기문화로 대표되는데 점토대토기문화는 연구자에 따라 청동기시대 후기 또는 초기철기시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라는 개념은 당연히 철기시대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철기의 생산과 유통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대이다(이청규 2018, 4쪽). 따라서 한반도에서 철기의 등장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기구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철기가 공반되지 않고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청동유물이 출토되는 단계는 당연히 청동기시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점토대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 후기에 포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점토대토기문화는 수석리유형으로 대표되며 안성 반제리에서 70기 이상의 대규모 취락이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5기 미만의 소규모 취락이 중심을 이룬다. 이 시기는 양주 수석리, 안성 반제리, 보령 교성리처럼 고지성취락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중기취락과는 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김권구 2014, 12쪽), 중기에 비해 취락이 급감한다. 호남지역에서도 조사된 취락에 비해 분묘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취락은 단독 또는 수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취락이 대부분인 반면 분묘는 수십 기의 군집묘가 확인되어 취락과 분묘의 양적불균형이 확인된다. 하지만

중부지역에서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호남지역에서도 대규모 취락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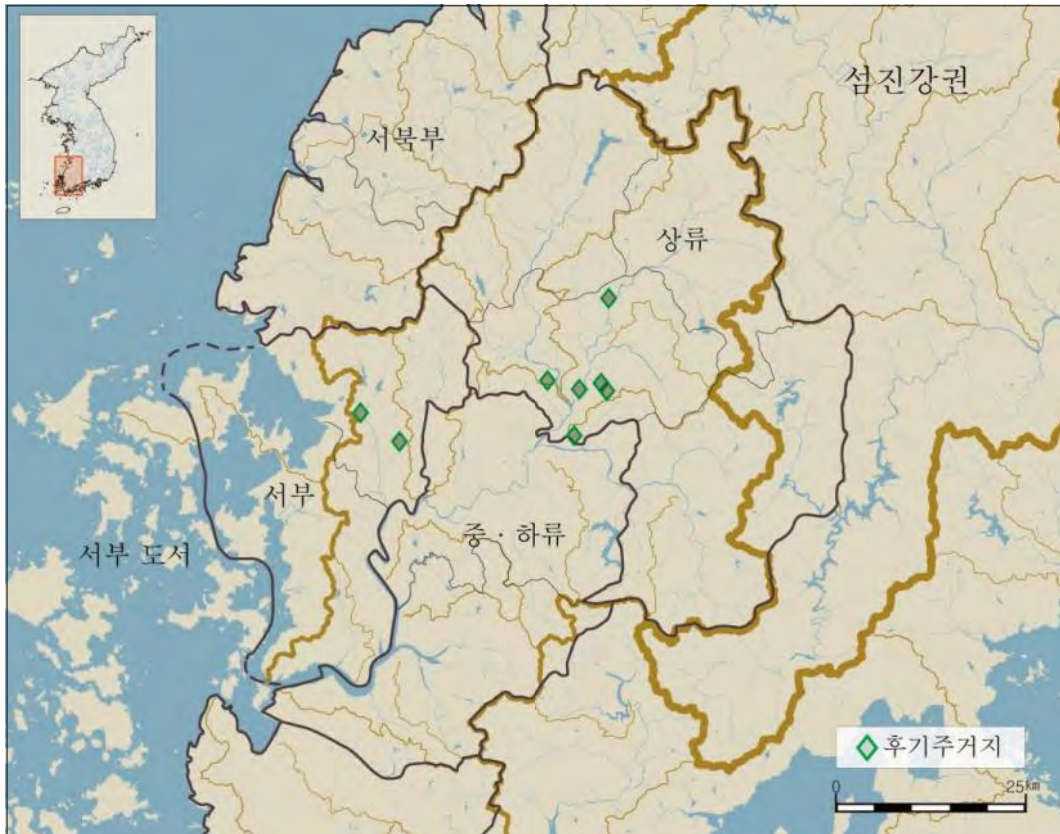


그림 5.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 분포도

원형점토대토기는 호남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그 중심분포권은 금강·만경강유역이며 이에 반해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영산강유역과 남해안지역이 중심분포권이다.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기 주거지는 광주 수문 1기(5호), 평동 A에서 9기, 나주 운곡동에서 1기 등 지금까지 조사된 주거지를 모두 합해도 10기 내외로 이전 시기의 송국리식주거지에 비하면 급감하는 양상이다. 물론 호남지역은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재지의 송국리식주거지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영산강유역에서도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광주 수문 5호 주거지는 평면 말각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고, 1호·7호·11호 수혈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1호 토광묘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2점과 흑색마연장경호 3점이 공반되었다. 평동 A에서는 주거지 9기, 수혈 82기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경우 壁附爐가 확인되며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 소형토기, 시루가 출토되었다. 나주 운곡동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75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II-33호 주거지 1기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점토대토기문화기 주거는 소형의 (장)방형 또는 말각(장)방형 주거 내부에 1기의 노가 설치된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외에 평면 원형이거나 노가 2기 이상 설치된 주거, 규모가 80㎡에 이르는 대형 주거도 확인된다(송만영 2011). 특히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 유형으로 알려진 수석리식주거는 벽면에 노가 설치된 壁附爐가 특징인데, 그 계보는 요령지역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송만영 2014, 85쪽). 영산강유역에서 壁附爐로 볼 수 있는 주거지는 광주 평동과 화순 황새봉에서 확인된 주거지가 있다.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은 대부분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며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한다. 절대연대는 광주 수문 5호 주거지 2,610±50BP, 나주 운곡동유적 II-33호 주거지 2,560±50BP, 광주 평동 A-363호 수혈 2,200±60BP, A-495호 수혈 2,290±60BP로 측정되었다. 아직 절대연대 자료가 많지 않고 수문 5호와 운곡동 II-33호 주거지의 연대는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한계가 있다. 나주 운곡동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보고자는 구연부 형식을 바탕으로 기원전 4세기로 편년하였는데(마한문화연구회 2009)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평동 A-363호 수혈은 삼각형점토대토기, 시루, 두형토기, 무문토기 저부편과 함께 타날문토기, 경질토기고배, 경질토기호 등 큰 시기차를 보이는 유물이 공반되었다. 하지만 A-495호 수혈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개, 두형토기가 출토되었으며 타날문토기가 공반되지 않았다. 평동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단순기가 보이지 않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절대연대가 비록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물의 상대연대를 고려할 때 신창동유적의 시기와 거의 동시기인 기원전 2세기(김규정 2021)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보기 힘들다.

신창동 최하층과 군곡리 최하층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신창동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며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기원전 1세기로 보고 있다(국립광주박물관 2003). 군곡리 패총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제 I 기층을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로 보고(강귀형 2019, 113쪽) 있는데 제 I 기층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도 출토되지만 경질무문토기(삼각형점토대 포함)도 상당량 출토되고 있으며 I 기층의 연대는 II기층과의 연속성과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질무문토기의 존재를 고려할 때 퇴적 시기를 크게 상향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원전 2세기를 중심시기로 보고 있다(한옥민 2019, 229쪽). 그리고 오룡동, 평동, 월전동 하선, 고양촌 등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데 대체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평동, 신촌, 화순 황새봉, 마산리 표산 등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영산강유역에서는 절대연대는 올라가지만 일부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기원전 2세기가 중심연대로 볼 수 있다(김규정 2021).

신창동, 평동, 황새봉, 행원리 행원 등에서는 평면 방형과 원형주거지들이 축조되고 있다. 물론 유물에 있어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도 확인되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공반된 사례가 많다(김규정 2021).

영산강유역 점토대토기의 변화 양상은 금강·만경강유역처럼 원형점토대토기 단순기→원형점토

대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 공반기→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로 편년 가능하다. 주거지에 있어서는 재지의 송국리식주거지→방형주거지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묘는 석개토광묘, 적석석관묘, 지석묘 등 재지의 청동기시대 분묘에 새로운 적석목관묘의 속성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하고(이동희 2002) 이후 (목관)토광묘와 옹관묘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 후기 분묘는 전기 이래 지석묘가 후기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물에 있어 점토대토기를 특징으로 한다. 영산강유역 지석묘에서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지석묘는 광주 매월동 동산 가군-5호 석곽, 나군-5호 지석묘, 1호 석곽, 나주 운곡동 다-1호 지석묘, 월양리 4호 지석묘, 영암 장천리 1호 지석묘, 엄길리 5호 지석묘 등이다. 매월동 동산 가군-5호 석곽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나군-5호 지석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편, 1호 석곽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나주 운곡동 다-1호 지석묘에서는 세형동검편, 주조철착, 일단경식석촉, 월양리 4호 지석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함평 덕림리 백양 24호 석곽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적색마연토기호, 33호 석곽에서 주조철부, 영암 장천리 1호 지석묘에서는 석제검파두식과 세형동검편, 엄길리 5호 지석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흑색마연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운곡동 다-1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편과 주조철착이다. 주조철착은 만경강유역 토광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지석묘의 축조시기의 하한을 알 수 있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덕림리 백양 24호 석곽과 엄길리 5호 지석묘에서도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영산강유역 지석묘는 초기철기시대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덕림리 백양 24호 석곽, 33호 석곽, 운곡동 다-1호 지석묘, 엄길리 5호 지석묘 등에서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엄길리에서는 매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례적인 행위로 유물이 지석 주변이나 적석 상면에 놓여 있어 지석묘를 축조하는 과정에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후대에 매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석묘 부장품으로 직접 부장되지 않은 경우 과연 지석묘 축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실례로 지석묘 주변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보다 늦은 원삼국시대의 토기편들도 수습되고 있는데 이 유물들이 지석묘와 직접 관련되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제례의식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까지 지석묘의 기능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조진선 2004, 194쪽). 이에 대해 이영문은 영산강유역에 분포된 지석묘 밀집지와 마한 소국 비정지를 비교하여 지석묘 축조집단들이 성장하여 다음 단계인 마한 소국을 형성한 토착세력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영문 2004, 89쪽), 삼국시대에는 지석묘를 재활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석실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술부족, 노동력 동원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 따른 축조 편이 도모·전통적 거석 숭배 신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동희 2017a, 101쪽).

나주 운곡동 IV-18호 주거지의 경우 $2,130 \pm 60\text{BP}$ 으로 측정되었으며 운곡동 II-33호 송국리식주거지와 I-11호 주거지 출토 점토대토기, 다-1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편과 주조철착 등으로 보아 송국리식주거지와 지석묘가 초기철기시대로 보고 있다(이동희 2017, 103쪽). 지금까지 자료로 본다면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기까지도 송국리식주거지가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자료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자료의 축적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영산강유역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광주 금호동 수혈 1기에서 삼각형점토대

토기, 두형토기, 석부가 출토되었고, 신촌에서는 수혈 22기, 구 11기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소호, 우각형파수,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오룡동에서는 구 3기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와 뚜껑이 출토되었고, 치평동에서는 구 2기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 무문토기저부가 출토되었다. 수혈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아 저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데 구의 경우 명확한 기능을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 신촌 나구역 구는 유적이 자리한 구릉지대를 감싸며 3~4중으로 돌아가고 단면 'V'자 또는 'Y'자형으로 이러한 형태와 구조로 보아 환호시설(호남문화재연구원 2011)로 보기도 하지만, 구릉 경사면을 따라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번에 굴착되기 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굴착이 이루어지고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대부분 파쇄된 상태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구의 기능은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농경

영산강유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은 조·전기 주거지는 19개소 50여 기, 중기는 88개소 650여 기가 조사되었다. 영산강유역은 낮은 구릉과 소하천들이 발달되어 있어 농경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도작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대의 농경유적인 신창동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농경은 2000년대 이후로 벼농사와 관련된 논과 수로 등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되면서 청동기시대에 수도작이 본격화 되었으며 식생활에서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준정 2011). 하지만 생계경제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의 다른 요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시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고일홍 2010, 27쪽) 청동기시대 농경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저습지 개발이 본격화된 것이 청동기시대인데 이는 벼농사를 위한 논 조성의 조성관리와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관개시설이 동반되며, 새로운 개념의 어로방식인 논 어로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현중 2011, 70쪽).

최근에는 청동기시대 생업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농경과 재배작물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경이 생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배작물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지방산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분석법을 통해 이를 이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곽승기 2017).

청동기시대 전기에 재배된 작물은 조, 기장, 콩과 함께 지역에 따라 벼와 맥류가 추가되며 미사리 유형과 역삼동유형에서 이미 잡곡(조·기장)+벼+맥류(보리·밀)+두류(콩)의 작물조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안승모 2008). 청동기시대 전기는 대대적인 개간을 통한 농경 보다는 취락 인근에서 소규모 경작과 함께 수렵과 채집, 어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취락의 생계를 이끌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박서현 2016, 26쪽).

영산강유역은 농경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기 농경과 관련된 흔적은 외치리 백야 A-10호 주거지에서는 탄화들깨가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경작지나 식물자료가 발견

된 예가 거의 없다. 다만 봉산들과 동림동유적 화분분석을 통해 농경과 관련한 식생 교란의 흔적이 확인되고 AMS연대 측정 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논농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구 2010, 54-60쪽).

곡물자료의 경우 영산강유역은 아니지만 동일한 문화상을 보이는 호남 북서부지역인 익산 용기리 I 유적에서 벼와 조·기장·콩이 검출되었고(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김제 상동동 I 유적에서 벼(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용기리 I 유적에서 조 압흔, 전주 동산동유적에서 탄화 조·벼와 조 압흔(가능성), 기장 압흔, 벼 압흔, 콩 압흔, 팥 압흔(가능성)이 확인되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이로 보아 자연환경이 비슷한 영산강유역에서도 전기부터 다양한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구릉과 충적지를 중심으로 대형취락들이 등장하고 영산강유역 전역으로 취락이 확산된 것으로 보아 전기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계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농지개발을 수반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충적지에 대규모 취락이 등장한 것도 중기에 비롯된 것으로 넓은 충적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릉과 구릉사이의 곡저지를 이용한 농경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산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에 농경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곡저지와 충적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농경유적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경의 적극적인 자료인 水田이 광주 용산동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AMS연대측정 결과 $2,550 \pm 40$ BP로 측정되어 시기적으로 중기로 볼 수 있지만,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조합식 우각형과수가 출토되었다. 원형점토대토기인들은 기본적으로 송국리인처럼 수전도작을 기반으로 안정된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이창희 2014, 18쪽) 점토대토기문화의 농경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다만 용산동유적에서 확인된 수전층은 AMS연대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수전이라는 점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 수전으로는 최초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기는 약간 늦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중심인 신창동유적에서는 벼가 재배된 밭이 최초로 확인되었고(조현중 2008, 40쪽), 장립의 탄화미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면 경작면적 확보와 더불어 우량품종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구 2010, 66쪽).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비해 후기가 되면 취락이 급감하지만 유적의 입지가 중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기에 본격화된 수도작이 후기에도 지속되며, 신창동유적처럼 논벼뿐만 아니라 밭벼재배(조현중 2008, 42쪽)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벼 이외에도 청동기시대에 다양한 곡물이 재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기에서부터 중기까지 콩자료는 연속되고 있으나 중기의 가장 큰 변화는 두류 특히 팥의 보편화이다(안승모 2008, 32쪽). 한반도에서 선·역사시대를 거쳐 가장 오래 식용된 두류는 대두와 팥으로 청동기시대에 콩과 식물이 주로 이용되는 것은 벼과 작물위주의 식단에서 오는 탄수화물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으로 주로 재배된 것으로 식생활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재배시 질소 고정을 통해 토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음식으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민구 2018, 167쪽). 밭작물 재배에 있어 대부분의 작물은 주로 두둑에 재배하지만 콩은 두둑과 두둑 사이

고랑에 심을 수 있는 혼합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일찍부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콩科 식물은 생육 기간이 짧고 가뭄에도 잘 견디고 지력을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한 작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농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취락의 입지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농경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라 식재료 확보를 위한 어로·수렵·채집 등 생계경제 전반에서 부족한 영양분 보충과 안정적인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영산강유역권은 청동기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형성·발전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는 조·전기부터 시작되지만 초기의 문화양상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 전기는 북으로부터 유입되는 가락동유형과 동으로부터 유입된 역삼동·혼암리유형이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호남 전역에 송국리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영산강유역도 송국리문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만, 여전히 재지의 지식묘문화도 지속된다.

특히 송국리문화는 수도작을 기반으로 호서와 호남지역은 물론 영남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영산강유역은 기후조건이 농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농경을 기반으로 대형취락들이 형성된다. 또한 송국리문화의 유입으로 분묘에 있어 재지의 지식묘에 송국리문화의 특징적 분묘인 석관이 지식묘 하부구조로 채용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식묘의 하부구조로 적합하지 않은 옹관묘는 전혀 채용되지 않는다. 즉 영산강유역은 지식묘라는 전통 묘제를 기반으로 상당한 결속력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송국리형취락은 급격하게 소멸하지만 지식묘 전통은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산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이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동기시대에는 전기부터 지식묘를 중심으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며 지식묘사회를 형성하고 중기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분묘에 있어 지식묘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묘를 받아들인다. 이후 후기에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지식묘는 쇠퇴하지만 옹관묘라는 새로운 분묘를 받아들이면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옹관고분으로 발전하게 된다. 영산강유역 문화권은 영산강을 통한 주변지역과 다양한 문화교류가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가 큰 역할을 하였겠지만 한편으로 영산강유역만의 독특한 고분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지식묘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보고서(보고서는 지면관계상 생략)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영산강유역 지식묘 1 장성·담양·광주·화순』.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영산강유역 지식묘 2 나주·영암』.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영산강유역 지식묘 3 함평·무안·목포』.
-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지식묘연구』, 국립박물관.
- 이영문, 2002, 『한국 지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 이영문·조근우, 1996a, 「전남의 지식묘」 『전남의 고대 묘제:본문편』,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 이영문·조근우, 1996b, 『전남의 지식묘』, 학연문화사.
-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 1996, 『전남의 고대묘제』.

논문

- 강동석, 2018, 「지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한국고고학보』 109, 한국고고학회.
- 고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 화전농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 67, 한국상고사학회.
- 곽승기, 2017, 「특정화합물 안정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중서부지방 생업양상연구」 『한국상고사학보』 95, 한국상고사학회.
-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정, 2016, 「제4장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울:서경문화사.
- 김규정, 2021, 「호남지역 마한 성립기 주거지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67, 호남고고학회.
- 김문국,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 고찰』,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구, 2010, 「영산강유역 초기 벼농사의 전개」 『한국고고학보』 79, 한국고고학회.
- 김민구, 2018, 「탄화물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대두 이용방법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00, 한국상고사학회.
- 김승근, 2007, 「전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인돌」 『아시아 거석문화와 고인돌』 제2회 아시아권 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엄, 동북아지식묘연구소.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 김진영, 2018, 「영산강유역 철기 수용과 배경」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 노양지, 2021, 『호서·호남지역 휴암리 유형 전개양상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현, 2016,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취락과 생업도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3, 호남고고학회.
- 배진성, 2018,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에 대한 보론」 『호서고고학』 40, 호서고고학회.

- 안승모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작물조성 -종자유체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28, 호남고고학회.
- 유향미, 2006, 「영산강유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양상」 『논문집』 6, 호남문화재연구원.
- 이동희, 2017a, 「지석묘의 재 활용과 그 의미」 『호남고고학보』 55, 호남고고학회.
- 이동희, 2017b, 「영산강유역 마한 초현기의 분묘와 정치체의 형성」 『호남고고학보』 57, 호남고고학회.
- 이영문, 2004, 「영산강유역 지석묘 문화의 성격」 『문화사학』 21, 한국문화사학회.
- 이영문, 2007, 「소위 송국리형 묘제의 형성과 그 특징」 『문화사학』 28, 한국문화사학회.
- 이영문, 2011,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묘제의 양상」 『문화사학』 35, 한국문화사학회.
- 이영문, 2014,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사성과와 연구과제」 『호남고고학보』 47,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02,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변화에 대한 시론」 『호남고고학보』 16,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14, 「제4장 호남·제주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취락』, 서울:서경문화사.
- 이준정, 2011, 「作物 섭취량 변화를 통해 본 農耕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3, 한국상고사학회.
- 이청규, 2018, 「남한지역 청동기 철기문화 전환에 대한 논의」 『신라문화』 5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조진선, 2003, 「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변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43, 한국상고사학회.
- 조진선, 2004, 「전남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 『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조현중, 2008, 『한국 초기 도작문화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중, 2011, 「한국 선사시대 저습지 이용양상시고」 『고고학지』 17, 국립중앙박물관.
- 홍밖음, 2010a,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전개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밖음, 2010b,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 36, 호남고고학회.
- 홍밖음, 2015, 「영산강 상류지역 지석묘 분포현황 및 연대검토」 『고문화』 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황재훈, 2017, 「영산강유역 송국리식 토기의 특징과 변천」 『호남고고학보』 56, 호남고고학회.

